

힘내라, 울진! 올여름 여행, 울진 어때?

한복의 수도 경북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총력



QR코드를 통해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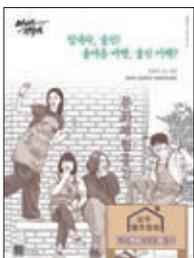
Contents

2022 Summer Vol. 430
Gyeongsangbuk-do Magazine



미래로 Jump

- 06 스케일업 경북** 민선8기 경상북도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 기획의 땅 경북
- 08 에듀 경북** 새벽에 공부하는 경북도청 공무원들
- 10 매력 경북** 한복의 수도 경북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총력」
- 12 워킹 경북** 힘내라, 울진! 울여름 여행, 울진 어때? 낭만 어때? 경북 축제 어때?
- 18 경북의 맛** 잃어버린 여름 입맛 잡는 다재다능한 감자의 매력



커버스토리

폐공장에서 상주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태어난 카페 명주정원

행복으로 Jump

- 20 청년, 경북을 품다** 비단같이 아름다운 정원을 품은 복합문화공간 명주정원 이민주 대표
- 22 명품 명인** 한 땀 한 땀 누빔 속에 삼라만상을 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 24 즐거움 플러스** 문인의 고장 경북 and 권정생 동화나라 마음의 여유까지 챙기는 여름휴가 with 북

새바람 행복경북



공감으로 Jump

- 28 **경북의 유산** "찬란한 해양 역사 알리자"
경상북도 '문무대왕 프로젝트' 본격 가동
- 30 **테이스티 경북** 대한민국 맛의 방주에 등재된
영덕가자미밥식해
- 32 **슬기로운 취미생활** 무더위를 날려버릴
여름 레포츠의 세계로 풍덩

다함께 Jump

- 34 **도정 · 의정뉴스** 도정 · 의정소식
- 40 **똑똑한 소비 생활**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
- 42 **트렌드 줌 인** 일상 회복 불안감(엔데믹 블루) 줄이는 노하우
저녁 회식 · 대면 근무는 괴로워
- 43 **리마인드 캘린더 엽서**
- 45 **알림 마당**

2022 Summer Gyeongsangbuk-do Magazine

발행처 경상북도 발행인 이철우 편집인 최우진 발행일 2022년 6월
문의처 경상북도 대변인실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4298 홈페이지 www.gb.go.kr
새바람 행복경북은 E-Book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바람 행복경북에 실린 글과 사진은 경상북도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새바람 행복경북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음성변환바코드
새바람 행복경북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12345

초록이 넘쳐나는 산과 들
여름의 향기는 짙어진다.
풍성하게 끝없이 뻗어가는 가지처럼
경상북도는 새로운 내일을
활기차게 열어간다.

안동 낙강물길공원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JUMP

한국의 지베르나라 불리는 안동 낙강물길공원의 여름
📍안동시 상아동 423



민선8기 경상북도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 기회의 땅 경북

7월 1일, 민선8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주어진 4년 동안 지방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경북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상북도의 민선8기 비전을 미리 만나본다.





민선8기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발족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4년간의 지방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부흥을 이끌 수장으로 확고하게 나선다는 방침이다. 6월 17일 '민선8기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아 최일선에서 기업 유치를 진두지휘한다. 위원회는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CEO, 금융전문가, 언론인, 교수, 유관기관 등 35명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공시대를 여는 경북

기업이 다시 찾는 '기회의 땅, 경북'을 만들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성공시대를 여는 경북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메타버스 산업단지, 초거대 클라우드팜 조성 같은 대형프로젝트도 추진해 디지털시대의 선두주자가 되는 도정을 펼치고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일자리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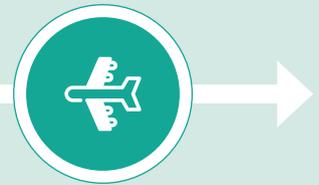
경북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 창이 될 신산업 육성

신산업 육성은 경북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의 창이다. 경북을 3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화 전략으로 추진한다. 동해안권은 신약, 배터리, 에너지 분야 첨단기술중심산업을 발전시켜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남부권은 신공항 개항에 맞춰 구미 5공단을 기업주도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북부권은 백신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농업과 연계한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거점별 농업클러스터구축 및 경북 푸드밸리 조성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해 나간다. 청년이 함께하는 농촌뉴타운 건설, 첨단 농업 일자리 창출, 공동 영농 및 6차 산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거점별 스마트 농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신공항 시대에 맞춰 항공특화단지과 연계한 경북 푸드밸리를 조성, 농식품 수출을 증대할 방침이다.



제대로 빠르게 신공항 건설을 목표로

신공항을 '제대로 빠르게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공항 인근에 자유무역지대를 지정해 국제비즈니스 단지로 육성하고 글로벌 최저수준의 법인세를 통해 미래항공산업·첨단소재 부품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공항 건설과 더불어 의성, 군위, 구미뿐만 아니라 안동까지 포함하는 '대한민국 신공항경제권'을 탄생시키는 방향으로 '명품공항'을 만들어 나간다.

새벽에 공부하는 경북도청 공무원들

“알아는
면장 한다”

- 어떤 일을 하려면 그에 관련된
학식이나 실력을 갖춰야 한다.

경상북도는 매주 화요일 새벽 7시부터 9시까지
‘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화공 굿모닝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특강 중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강연을 지면에 담았다.

화공 굿모닝 특강이란?

2018년 민선 7기 출범 이후, ‘화요일에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매주 화요일 새벽에 열리고 있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4차산업혁명,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해
12월 140회를 넘겼다.



화공 굿모닝 특강 명강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이 시대의 리더는 어떠한가?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은 지키되 바꿀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다. 두 번째, Polymath 형 리더로서 조금 더 광범위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전문 지식에 대한 조연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 세 번째,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소통이다.

소통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휴먼 대 휴먼이다.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소통이다. 소통에 있어서 바이블로 삼는 종군 여기자의 이야기가 있다. “맥아더를 만났을 때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두 번째, 휴먼 대 머신이다. 기계와 소통하려면 ‘AI Bilingual 인재’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휴먼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리더가 정책을 펴려면 스스로 행복하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자연과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 뉴욕 시러큐스대학교의 교수 샘 판 아켄(Sam Van Aken)은 다양한 가지들 서로 접을 붙여서 40여 가지의 과일이 열리는 나무를 탄생시켰다. 리더는 이 나무의 밑동과 같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지도자이다. 그래서 리더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고, 또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대화하는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정준선 KAIST 전기전자공학부 조교수

인공지능은 이미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도 일종의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냉장고, 스피커와 같은 생활가전에 인공지능이 붙어 있는 ‘Smart Appliance’, IoT 기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분야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인공지능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컴퓨터가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사람을 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인공지능 중에도 이슈되는 것이 딥러닝(Deep Learning : 심층학습)이다. 딥러닝을 잘 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21세기의 금’이라 할 수 있다. 즉, 데이터가 많아야 인공지능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인공지능은 사람이 못 푸는 문제를 풀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립리딩(Lip reading : 독순술)’인데,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립리딩 테스트를 했을 때, 사람은 25% 정도 맞췄지만 인공지능은 70%를 맞췄다. 또 인공지능과 사람에게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고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했을 때, 인공지능은 단 1%밖에 틀리지 않지만 사람은 15% 이상 틀렸다. 인공지능이 벌써부터 사람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이런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한복의 수도 경북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총력」

K콘텐츠의 세계적인 열풍에 힘입어 한복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가 국제 공연 무대 의상으로 한복을 활용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복 열풍’이 일고 있다. 한복의 본고장 경북은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행정 역량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세계인이 메타버스에서 한복 체험하는 플랫폼



한복의 수도로 통하는 경상북도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복 열풍’을 발판 삼아 행정 역량을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에 모아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한복 명장 12명 가운데 8명이 경북에서 활동 중이고 한복 주요 소재인 상주의 명주(국내 총생산량의 95%), 영주의 인견(국내 총생산량의 85%), 안동의 삼베(국내 총생산량의 80%) 등 전통 섬유산업의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일상 한복 세계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 세계인이 메타버스(디지털 가상세계)에서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선 한복 전시와 온라인 교육 등도 이어진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각종 K콘텐츠에 개성 넘치는 한복 의상을 적극 협찬해 한복 대중화와 세계화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한복진흥원과 '신(新) 한복쟁이 발굴 프로젝트' 추진

경상북도는 지난해 4월 상주시 함창읍 명주테마파크에 191억6000만 원을 투자해 연면적 819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한국한복진흥원을 열었다. 전시홍보관과 융복합산업관, 전수학교 등을 갖춘 한국한복진흥원은 한복 소재 및 옷 연구, 산업화 방안 모색, 한복 장인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또 한국한복진흥원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신(新) 한복쟁이 발굴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10개 한복 전문 업체를 선정해 한복 패션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한편 경영 컨설팅과 브랜드 마케팅, 생산 관리도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복 관련 공모에도 잇따라 선정됐다. '지역 한복 문화 창작소 조성 사업'에 올해부터 3년간 국비 10억 원을 투자한다. 경북형 한복 문화 창작소인 '상주 상의원'을 만든 뒤 한복의 생산, 판매,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경북지역 초중고교 50여 곳에서 한복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복 유통 판로도 온오프라인으로 개척하기로 했다.



▷ 경상북도가 한복 근무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한복 근무복은 현대적인 감각과 해석으로 일상복으로 재탄생됐다. 앞으로 정월대보름날·단오날·한글날·한복의 날, 확대간부회의 등 중요한 날 착용할 방침이다.



힘내라,

울진

올여름 여행, 울진 어때?

지난 2월과 5월 발생한 산불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올여름 휴가지로 울진을 선택해달라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깊고 푸른 동해가 손짓하는 울진에서 훈훈한 여행의 발자국을 내디려보자.



동해를 내려다보며 달리는 짜릿한

죽변해안스카یره일

최근 울진 여행에서 1순위로 꼽히는 곳은 단연 지난해 8월 운영을 시작한 죽변해안스카یره일이다. 죽변해안스카یره일은 울진 바다를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모노레일로, 죽변항부터 후정해변까지 시속 5km의 속도로 2.4km 구간을 달린다. 바다 위를 달리는 모노레일 자체로도 재미 있지만, 모노레일 안에서 하트해변과 죽변 등대,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등 유명 관광지를 내려다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다.

- 📍 울진군 죽변면 죽변중앙로 235-12
- 🕒 하절기(09:30 ~ 18:30),
동절기(09:30 ~ 17:30)
- 🌐 www.uljin.go.kr/skyrail
- ☎ 054-783-8881



울진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의성신문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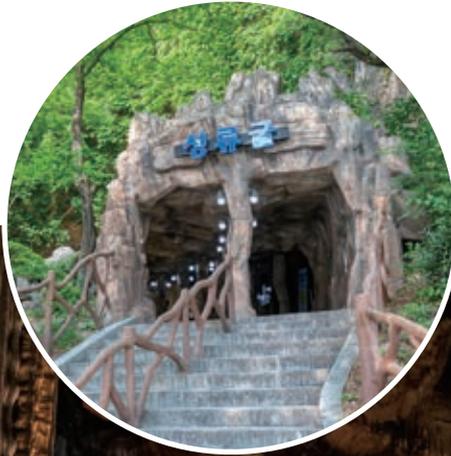
바다 위 레일을 따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یره일

신라 진흥왕도 다녀간 2억5000만 년 신비

성류굴

무더운 여름에 가면 더욱더 매력적인 여행지는 동굴 여행이다. 2억5000만 년 세월을 품은 성류굴(천연기념물 155호)은 오랜 역사와 과학이 담긴 동굴이자, 선조들이 이곳을 찾아 문학과 예술을 즐긴 흔적이 많은 동굴이다. 최근 성류굴에서는 1500여 년 전 신라의 전성기를 이끈 진흥왕이 다녀갔다는 국보급 명문이 발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시원함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다양해 피서지로도 손색이 없다.

- 📍 울진군 근남면 성류굴로 221
- 🕒 09:00 ~ 18:00,
3 ~ 10월 매주 월요일 휴무
- ☎ 054-789-5404



- ③ 왕피천과 동해가 만나는 이색 풍경
- ④ 엑스포공원과 해맞이공원을 연결하는 왕피천 케이블카
- ⑤ 오랜 역사와 과학이 담긴 성류굴



강과 바다를 한눈에 조망하는 낭만

왕피천 케이블카

생태경관 보존지역 왕피천, 그리고 푸른 동해 바다, 숲.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왕피천 케이블카를 타면 가능하다. 총연장 715m에 최대 높이 55m로 엑스포공원과 망양정 해맞이공원을 연결하는 하늘길이다. 왕피천 케이블카를 타고 해맞이공원으로 오르다 보면 강과 바다의 경계선이 보이는 특이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또 케이블카 탑승장이 있는 엑스포공원의 아름다운 소나무 숲과 동해 일출, 망양정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모습을 보면 마음과 몸이 평온해지는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① 울진군 근남면 엑스포로 25
- ② 하계(7~8월) 10:00 ~ 19:00, 동계(11~3월) 10:00 ~ 17:30,
춘추계(4~10월) 10:00 ~ 18:00
- ③ 054-782-9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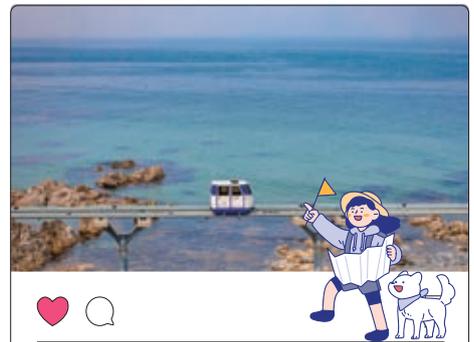


나라가 지키는 숲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금강소나무 숲

금강소나무 숲은 나라가 지키는 숲이다. 산림청이 보호하는 이 숲의 면적은 37.05km². 축구장 5189개 넓이에 해당한다. 이 광활한 숲을 구석구석 볼 수 있는 건 금강소나무 숲길 덕분이다. 탐방은 예약제로만 운영된다. 숲은 1680년(숙종 6년)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금강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다. 당시 표석 너머로 들어갔다가 발각되면 곤장 100대를 때리는 중형에 처했다. 그런 귀한 숲길을 걷는다는 것은 영광이고 울창한 숲 사이를 채우는 빛줄기, 소나무 향, 새소리는 특별한 이들이 누리는 선물이다.

- 📍 울진군 금강송면 십이령로 527
- 📞 예약 : www.uljintrail.or.kr(예약 필수)
- ☎ 054-781-7118, 054-782-6118
- * 구간에 따라 집결지 다름.(총 7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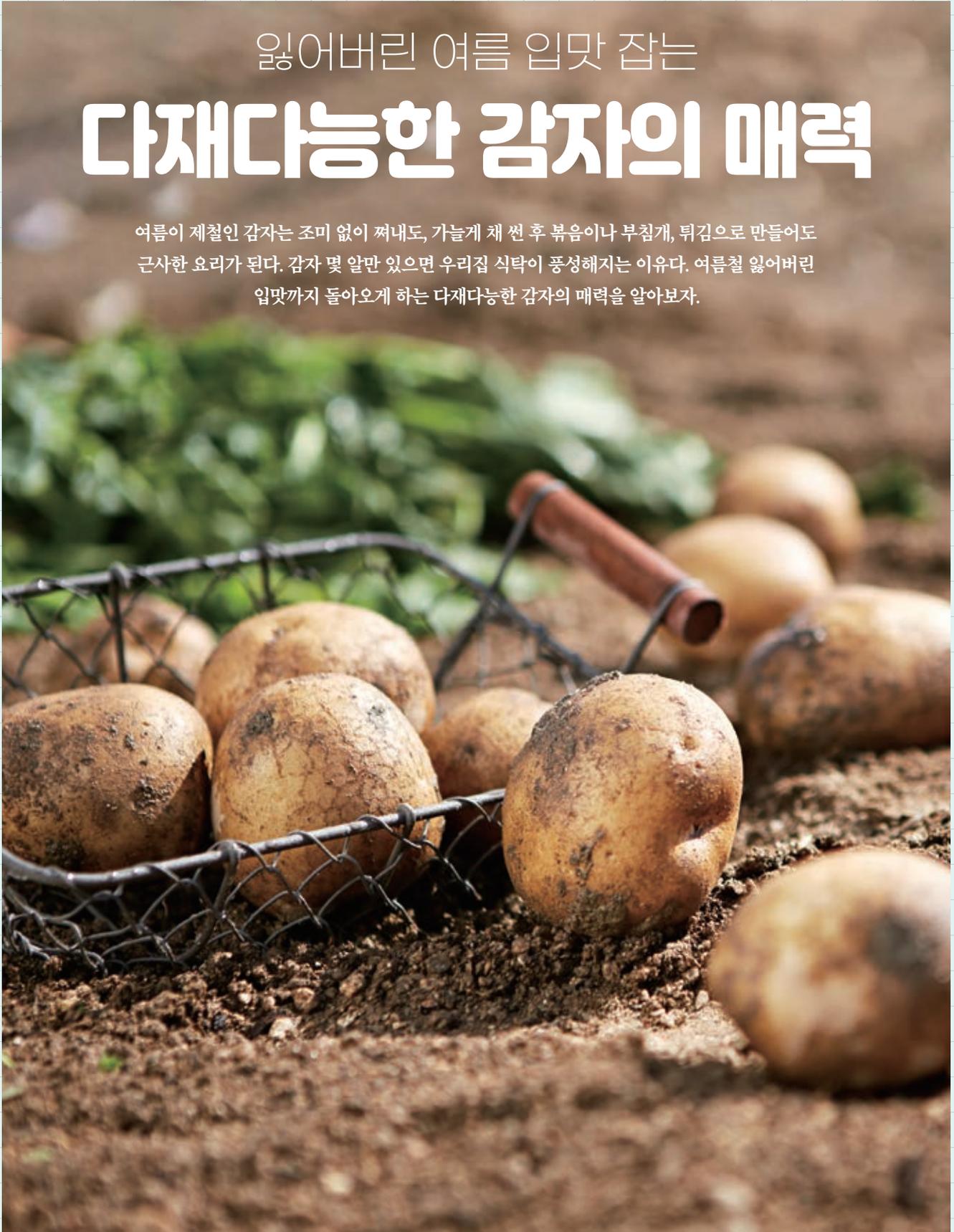
울진 여행하고 인증사진 SNS에 올려주세요!

경상북도는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7월 24일까지 울진을 여행하고 방문한 인증사진을 개인 SNS에 소개하면 상품과 기념품을 주는 ‘울진, 어디까지 가봤니?!’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울진 어느 곳이든 멋진 곳을 둘러보고 울진 여행 인증사진만 필수해서 태그(#경북여행, #울진여행, #국내여행지추천)와 함께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카카오톡 등)에 올리면 된다. 상세 안내 사항은 레츠고 경북여행(letsogob.com)을 참고하면 된다.

잃어버린 여름 입맛 잡는

다재다능한 감자의 매력

여름이 제철인 감자는 조미 없이 찌내도, 가늘게 채 썬 후 볶음이나 부침개, 튀김으로 만들어도 근사한 요리가 된다. 감자 몇 알만 있으면 우리집 식탁이 풍성해지는 이유다.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까지 돌아오게 하는 다재다능한 감자의 매력을 알아보자.





○ 개진감자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자를 생산하지만, 고령군 개진면에서 재배되는 개진감자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제93호로 등록되며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고령군은 낙동강변 사질토로 물빠짐이 좋을 뿐만 아니라 햇살을 듬뿍 받고 자라는 천혜의 재배 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오랫동안 축적된 감자 재배 노하우가 더해져 다른 지역 감자에 비해 알이 굵고 육질이 단단하며 전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



감자샐러드빵

○ 감자의 영양

감자는 다른 채소에 비해 비타민C가 월등히 많아 ‘밭의 사과’라고 알려져 있다. 열에 의한 손실도 적어 어떠한 요리에도 영양분 손실이 거의 없다. 또 감자에 있는 사포닌 성분은 위궤양과 염증을 치료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 피부 미백 및 진정에도 효과가 좋다.



tip box

○ 감자 짜글이

밥 위에 듬뿍 떠서 비벼먹을 수 있는 감자 짜글이. 재료들을 자작하게 끓여내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

👉 재료

감자 3개, 양파 반 개, 대파 한 뿌리, 청양고추 3개, 통조림 햄 1캔, 물 2컵

👉 양념장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 1큰술, 된장 반 큰술, 설탕 1큰술, 진간장 4큰술, 다진마늘 1큰술

👉 만들기

1. 감자는 깍둑썰기하고 양파는 도톰하게 채 썬다. 대파와 청양고추는 송송 썰어준다.
2. 통조림 햄을 비닐봉지에 넣어 완전히 으갠다.
3. 냄비에 감자, 양파, 햄을 넣고 양념 재료를 넣어 잘 섞는다.
4. 대파와 청양고추, 물을 넣고 짜글짜글하게 끓인다.
5. 국물이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서 졸이듯이 끓여 완성한다.

감자 보관 팁

감자를 보관할 때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가 발산하는 가스가 감자가 싹 틔우는 것을 방지해 주어 오래 두고 즐길 수 있다.



비단같이 아름다운
정원을 품은 복합문화공간

명주정원

공간은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다. 상주시 함창읍에 있는 카페 명주정원이 그렇다.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던 공간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으로 쓰임이 달라졌던 공간이 이제는 여유와 힐링, 문화가 결합한 상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 중심에 이민주 대표(34)가 있다.



목말랐던 문화예술공간을 만들어 보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상주를 떠났던 이민주 대표는 12년간의 외지 생활을 청산하고 2019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힘든 도시 생활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고향에서의 삶은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도시에 비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민주 대표는 공간을 찾아 나서는 대신 공간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상주에도 젊은 친구들이 편하게 힐링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품다 실행에 옮겼어요. 제가 필요로 했던 것이니만큼 정말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폐공장이 1년 6개월 만에 카페로 변신

2019년 가을 무렵 지인이 운영하다 문을 닫으면서 2~3년간 방치돼 있던 폐공장을 빌렸다. 그보다 더 과거에는 찜질방으로 인기를 누렸던 공간이었지만 당장의 모습은 손덜 곳 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게다가 3300㎡(1000평) 면적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전문 업체에 시공을 맡길 만큼 여유롭지 도 않았다. 셀프 인테리어를 결심했다. 이민주 대표와 아버지, 당시 남자친구(현재 남편) 이렇게 세 사람은 앞을 내다보 고 조경부터 시작했다. 대나무를 구입해 와 울타리에 심었 다. 이후 벽돌을 쌓고 바닥을 깔고 색을 칠하고, 가구를 만들 고 조명을 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완성해 갔다. 업 체에 맡겼다면 2개월에 끝났을 일이 1년 6개월이나 걸렸지 만, 덕분에 10분의 1의 비용만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문화체험을 누리는 정원이 아름다운 카페

지난해 5월, 문을 연 명주정원은 특색 있는 공간과 카페, 문 화체험 프로그램 덕에 평일에는 150 ~ 200명, 주말이면 800명이 찾는 상주 대표 핫플레이스가 됐고 직원도 9명으 로 늘었다. 정원을 관리하는 할머니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이다.

당초 설립 목표처럼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행사가 이어지면 서 사람들이 찾아왔고 사람들이 찾으면서 더 많은 문화행사 를 기획하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태 도에 관하여’로 알려진 임경선 작가가 독자와 소통하는 시간 을 가졌고, 이슬아 작가와 가수 요조는 토크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공예주간이었던 지난 5월 20~29일에는 상주와 문경 에서 활동하는 5인 5색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원데이클 래스, 공예마켓 등을 겸한 문화예술 비단길프로젝트 ‘있다’를 운영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지역 공예작가와 협업해 귀걸이·목걸이를 상설로 전시·판매 중이다.

“요즘 트렌드에 맞춘 체험행사 진행은 물론 새로운 걸 배울 기회도 넓혀갈 생각입니다. 또 고택을 숙박이 가능한 공간으 로 꾸미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신청자 중 휴식이 필요한 분 을 선정해 하룻밤 쉴 수 있도록 한다면 제대로 된 힐링이 되 지 않을까 싶어요.”

명주정원

- 📍 상주시 함창읍 새재이길 7
- 🕒 12:00 ~ 22:00
- ☎ 054-541-0043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

한 땀 한 땀 누빔 속에
삼라만상을 담다

수천만 번의 바늘땀을 놓아야 완성되는 누비옷. 국내 유일무이 김해자 누비장 (70·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은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비우고 비워낸 마음의 끝자락을 바늘을 통해 손끝으로 옮겨내고 있다. 경주시 탑동에서 '누비공방'을 운영하며 의상 제작 및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는 그를 만났다.



잠들어 있던 누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다

한복을 짓던 김해자 누비장은 승복 누비옷을 보고 좋아서 누비를 시작했다. 이후 우연히 민속자료 114호 액주름포와 치마, 저고리, 두루마기를 재현해 출품한 것이 17회 전승공예 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면서 맥이 끊겼던 누비를 살아나게 한 계기가 됐다.

약 100여 년 전후 우리나라에 재봉틀이 들어오면서 손누비를 하는 사람이 점차 사라졌고 명맥이 끊길 상황이었다. 학계가 어려운 시절에 다행히 발굴을 통해 조선시대 복식이 출토되면서 김해자 누비장은 유물을 스승 삼아 연구하고 독학으로 공부해 손대기 어려운 출토복식을 복원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수 있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으로 지정되었다.



허공에 점 하나 찍어 연결하는 한국 문화의 정수

누비는 지극히 단순한 작업의 반복이다. 그러나 한 땀의 공력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남을 위해 공을 들이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즉 허공에 점 하나를 찍어 연결하는 단순 작업이지만, 한국 문화의 정수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이처럼 평생 수행하듯 단순한 동작을 끈기 있게 반복했고, 그 결과 편안한 마음과 편안한 옷을 얻었다. 그의 옷은 입은 사람은 물론 보는 사람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것을 알아본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었다. 김해자 누비장의 옷은 한국을 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대표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가 그의 팬을 자임할 정도다. 10년 넘게 사용했던 지갑이 해지자 지난해 연락이 와 다시 해줬다.

비 테라피'도 그 일환이다. 매월 4째 주 목, 금요일 하루 3번씩 30분 코스로 진행할 예정인데 마음의 안정과 누비를 경험하기에 딱 찬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는 평생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일흔이 넘은 이제야 누비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도 생겼고요. 죽는 날까지 바늘을 놓지 않을 것이며 우리 누비를 알리고 전수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지요.”

한국의 누비를 세계인이 경험하게 하는 꿈

김해자 누비장은 누비법 복원을 그만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다. 지난 30여 년간 그를 찾아 누비를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 왔다. 그중에는 누비의 길을 올바르게 걷는 이들도 있다. 현재도 그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누비문화연구원에는 문화재청 이수제자들이 배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해자 누비장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이들이 누비를 접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누



이세이 미야케가 애용하는 김해자 누비장의 누비 지갑

누비공방

📍 홈페이지 nubi107.com

📞 체험 문의 054-775-2631

문인의 고장 경북 and

권정생 동화나라

문화예술의 고장 경북. 우리 문단을 이끈 수많은 작가를 배출했다. 그중 한국의 대표 아동문학가인 권정생 작가를 기리는 권정생 동화나라를 찾아 온화한 문학의 힘을 만나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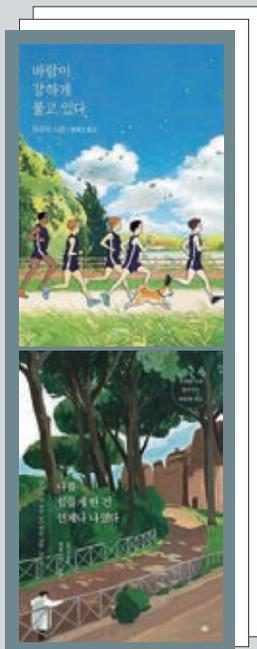
권정생 선생의 문학과 삶이 담긴 곳

권정생 동화나라는 아이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아동문학가 권정생 선생의 문학과 삶이 담긴 공간이다.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폐교된 남부 초등학교를 새롭게 꾸몄다. 선생의 대표적인 단편 동화 '강아지똥' 초판본을 비롯해 전쟁의 참상 속 아이들의 삶과 인간미를 그린 '몽실 언니', 산불 속 까투리의 모성애를 담은 '엄마 까투리' 외에 '무명 저고리와 엄마', '황소 아저씨' 등 유작을 만날 수 있다. 일기장과 유언장, 가난을 견뎌내며 살아온 발자취가 시기별로 전시돼 있다. 전시실 한쪽에는 선생이 살던 오두막집도 실물 그대로 재현돼 있다. 선생은 2007년 세상을 떠났지만, 작품은 남아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준다. '좋은 동화 한 편은 백 번 설교보다 낫다'는 선생의 신념을 찬찬히 되새길 수 있다.

권정생 동화나라

- 관람 시간 10:00 ~ 17:00
- 입장료 무료
- 휴관 월요일, 1월 1일, 명절 당일





마음의 여유까지 행기는 여름휴가 with 북

풍덩!

휴식에 관한 그림 에세이다. 휴식이 필요할 때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았고 물에 기대 쉬었던 저자가 휴식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소중한 거라고 이야기하며 물과 수영을 통해 휴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휴식을 전한다.

지은이 이지현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청년도배사 이야기

저자는 스스로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선 끝에 도배사라는 도전을 시작한다. '여성 도배 기술자'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 관념과 편견, 기술직의 장단점, 그리고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직업관 등을 솔직하면서도 무겁지 않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지은이 배윤슬 / 출판사 궁리(궁리출판)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인문고전, 철학, 역사,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서 글쓰기가 공감하고 큰 위로를 받았던 인생의 문장을 싣고 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채 헤매는 청년들에게 진솔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가 있는 쉼터 같은 책이 될 것이다.

지은이 전승환 / 출판사 다산초당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개성 강한 청춘이 같은 꿈을 품고 역전 경주에 참가하기까지 무모한 도전의 여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서툰고 불안한 열 명의 청년에게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와 위로가 있다.

지은이 미우라 시온 / 출판사 청미래

나를 힘들게 한 건 언제나 나였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자기계발 멘토이자 저자인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성공의 비결은 '나답게 사는 것'이다.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는 마음 성장의 지침서이다.

지은이 데일 카네기 / 출판사 예문

공감으로



KASI 한국천문연구원
Korea Astronomy & Space Science Institute
보현산천문대

J U M P

반짝이는 것은 별이 아니었다.
반짝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었다.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별처럼
고달픈 삶을 견디어낸 우리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을 것이 분명함을 확인하는 밤이다.

THE KING MUN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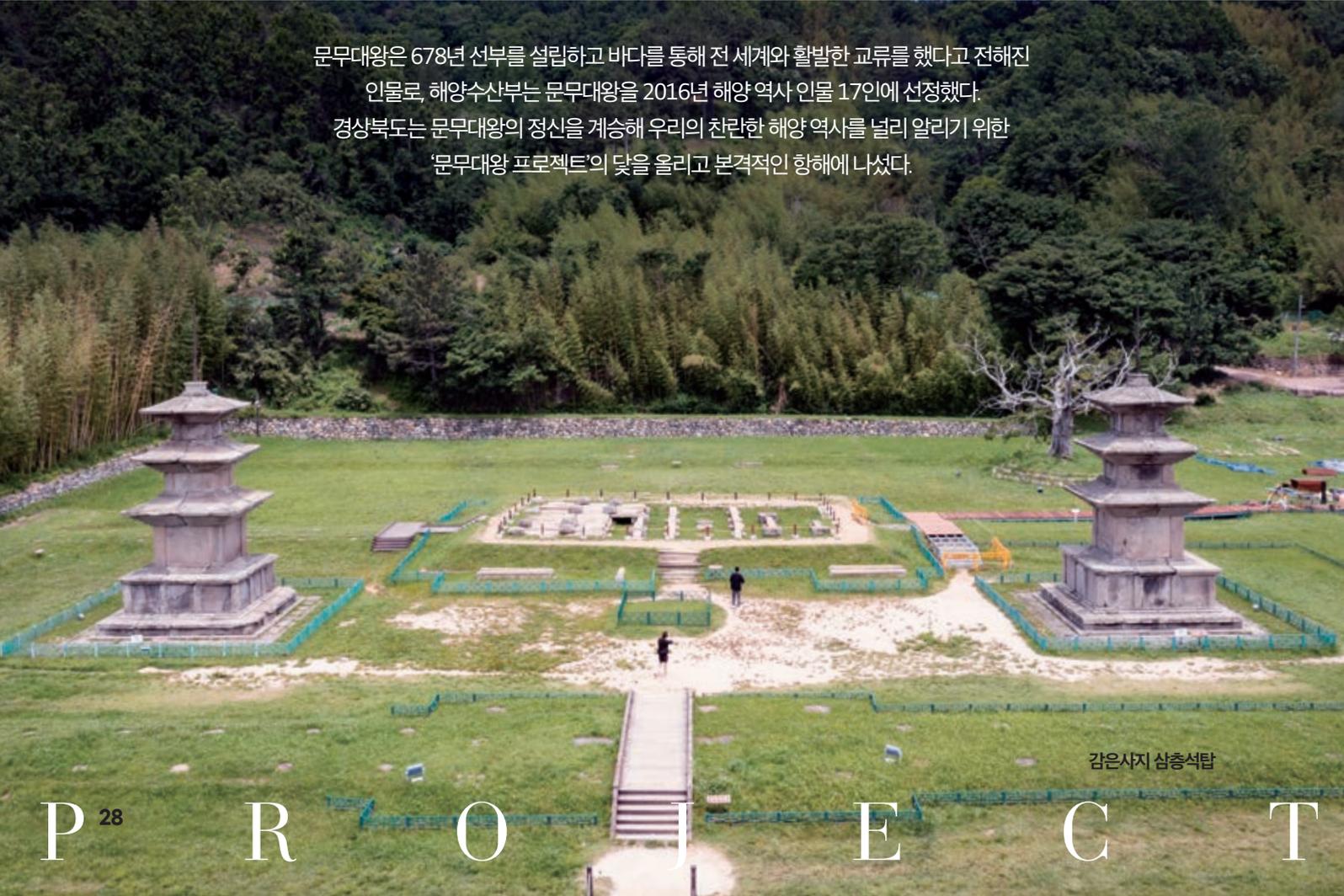
공감으로 Jump 경북의 유산

“찬란한 해양 역사 알리자”

경상북도 '문무대왕 프로젝트' 본격 가동

문무대왕은 678년 선부를 설립하고 바다를 통해 전 세계와 활발한 교류를 했다고 전해진 인물로, 해양수산부는 문무대왕을 2016년 해양 역사 인물 17인에 선정했다.

경상북도는 문무대왕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의 찬란한 해양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문무대왕 프로젝트'의 닛을 올리고 본격적인 항해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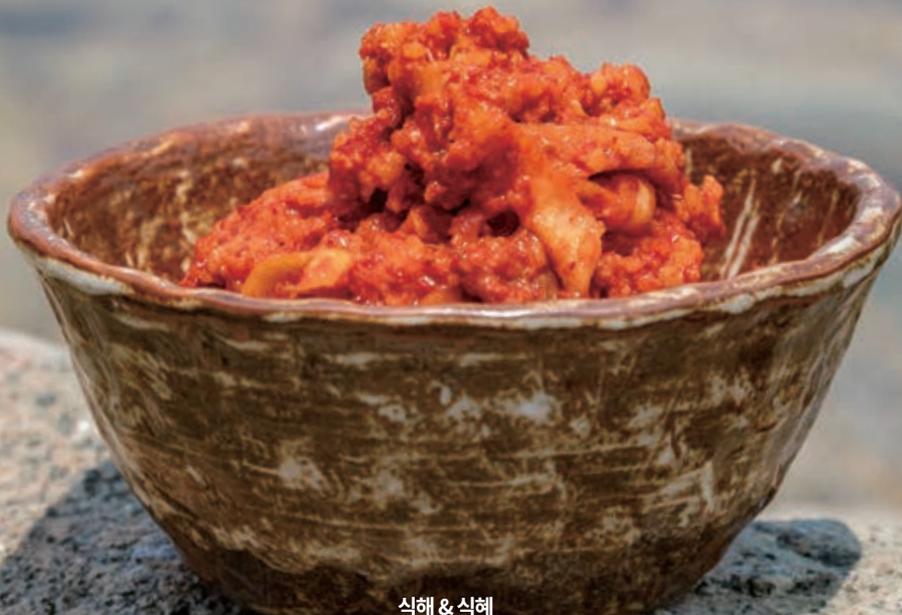


감은사지 삼층석탑

소멸 위기 식재료 및 음식 보전 프로젝트
대한민국 맛의 방주에 등재된 소중한 유산

영덕가자미밥식해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귀한 손님이 올 때 만들어 먹던 전통음식인 영덕군의 '영덕가자미밥식해'(Yeongdeok Gajami Bobsikhae)'가 국제슬로푸드(www.slowfood.org)의 맛의 방주에 105번째로 등재되며 역사적 특성과 영양학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로써 영덕가자미밥식해는 음식유산을 넘어 소중한 유산이 된 것이다.



식해 & 식혜

식해는 생선에 약간의 소금과 밥 또는 조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이고, 식혜는 엿기름을 우리 옷물에 쌀밥을 말아 삭힌 우리 전통 음료이다.



식해



🍲 소금이 귀한 지역에서 잉태된 식해의 역사

식해(食醢)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 중 하나로 주로 경상북도, 함경도, 강원도 등 동해 지역에서 널리 발달한 음식이다. 소금 생산이 많은 서해 지역이 생선을 소금으로 절여 염장 발효한 ‘젓갈 문화권’이라면, 상대적으로 소금이 귀한 동해는 쌀이나 기장, 조 등 곡물로 유산 발효시킨 ‘식해 문화권’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16세기 말경에 쓴 ‘주방문(酒方文)’ 등 문헌에 식해가 기록돼 있으나, 더 오래 전부터 즐겨 먹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맛은 물론 영양 면에서 매우 중요한 발효 식품

영덕가자미밥식해는 우리 민족의 벼농사 공동체문화와 풍부한 해양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어로문화가 동시에 발전한 영덕군의 지리적,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전통음식이다. 청정 동해에서 잡히는 싱싱한 가자미의 물기를 하루쯤 가볍게 말린 뒤 적당한 크기로 뼈째 썰어 엿기름으로 하루 동안 발효시키고 다음 날 고두밥, 채를 썬 무와 함께 소금, 고춧가루 등의 양념으로 빨강게 버무려 다시 숙성시킨다. 이중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유산(젖산) 발효가 일어나 알싸한 특유의 감칠맛과 풍미는 물론 영양학적으로도 뛰어나다.

🍲 전통음식문화 보존·복원 및 상품화에 박차

영덕군은 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덕향토음식의 후대계승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인 밥식해 전수 교육을 수행해 왔다. 이번 ‘맛의 방주’ 등재를 통해 지역의 전통음식문화 가치가 인정된 만큼 보존·복원은 물론 상품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덕가자미밥식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해 계속 등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다양한 식재료 및 음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Tip



맛의 방주 프로젝트는?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맛의 방주(Ark of Taste)’ 프로젝트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로부터 동물의 개체를 보호했듯이 위기에 처한 종자나 식재료를 ‘맛의 방주’에 승선시켜 지역 음식문화 유산의 가치를 지키는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기준 105종의 다양한 동·식물 품종과 전통식품이 등재되어 있다.

S U M M E R

공감으로 Jump 슬기로운 취미생활



무더위를 날려버릴

여름 레포츠의 세계로 풍덩!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다.
가족과 함께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휴가를 갖고자
한다면 레포츠 활동을 겸한 휴가를 떠나 보자.

L E P O R T S



무더위를 날리는 짜릿한 수상 레포츠 구미시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

여름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는 레저 레포츠의 대명사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다. 구미대교 하단에 위치한 낙동강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수상 레포츠를 부담 없이 즐기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열리는데, 안전에 관한 설명과 교육을 진행한 후 카약, 카누, 래프팅, 패들보드, 고무보트,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당기요트를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전한 수상레저 체험을 위해 사전 온라인 예약제로 하며, 잔여분은 현장접수로 진행한다.

- ① 홈페이지 www.gumileports.kr
- ② 위치 구미시 수출대로 326-20
- ③ 이용 09:30 ~ 17:30, 월요일 휴무



93m 높이 승공을 나는 기분 김천 부항댐 레인보우 zip와이어

부항댐 레인보우 zip와이어는 부항댐 양쪽에 있는 93m의 무지개색 타워 사이 1.7km를 왕복하며 스릴과 즐거움으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잊을 수 있다. 타워 상부(85m 지점)에는 국내 최초 완전 개방형 스카이워크가 설치돼 전망대 외부 42.3m 둘레를 안전줄에만 의존해 걷는 스릴 만점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또한 zip와이어와 500m 떨어진 곳에는 국내 최장인 256m 길이의 출렁다리가 있어 물 위를 걷는 스릴과 부항댐의 아름다움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다.

- ① 홈페이지 www.rainbowzip.com
- ② 위치 김천시 부항면 부항댐길 352
- ③ 이용 평일(10:00 ~ 18:00), 주말 / 공휴일(09:00 ~ 18:00), 하절기(09:00 ~ 19:00), 동절기(10:00 ~ 17:00), 월요일 휴무



썩어내는 겨울이? 여름이 제맛! 칠곡 사계절 썰매장



칠곡군 석적읍 칠곡호국평화기념관 옆에 자리한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은 2020년 8월 문을 연 이후 사계절 내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3만7000㎡ 부지에 썰매장, 전동카트 체험장, VR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쉼터 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썰매장은 100m 길이 레인에 10명이 동시 탑승할 수 있는 슬라이드와 착륙장이 설치돼 있으며,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세 번의 굴곡 슬라이드로 짜릿한 하강체험을 제공한다.

- ① 홈페이지 www.cg4s.or.kr
- ② 위치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339-1
- ③ 이용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무





민선8기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

경상북도는 6월 17일 도청에서 민선8기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투자유치 100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대기업 임원 출신과 기업 CEO, 금융전문가, 언론인, 교수, 유관기관 등 29명의 위촉직 위원(공동위원장 포함)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수소충전소 설치 국비확보... 친환경 수소자동차 대중화 선도

경상북도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사업에 참여해 올해 4개소(9기)가 선정돼 총 사업비 220억 원(국비 142억 원, 민간 78억 원)을 확보했다. 선정된 4개소는 안동, 경산, 구미(2개소)로 안동의 도청 천연숲(충전기 1기)과 구미 오태동(충전기 2기)은 승용차 위주의 일반 충전소로 구축한다. 도내 수소충전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성주휴게소와 상주 외담동 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산불피해 극복 산림대전환 4대 전략 16개 과제 마련

경상북도는 6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산림대전환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산불피해지의 생태·경제·문화에 대한 생산적 복원 등 포괄적 산림대전환을 추진하는 4대 역량강화 전략프로젝트와 16개 과제를 마련하고 세부사업의 기본구상을 구체화했다.



민선8기 농정비전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 선포

경상북도는 6월 16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민선8기 농정비전으로 ‘농업은 첨단산업으로! 농촌은 힐링공간으로!’를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할 정책발표와 토론회를 가졌다. 경북도의 새 농정비전은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기술이 일반화되면서, 농업분야의 위기를 4차 산업기술 접목을 통한 첨단화와 농촌 공간 재창출을 통해 극복하자는 데 있다.



여름철 온열질환자 대비 폭염 상황실 운영

경상북도는 폭염 관련 기상특보 발령 또는 119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폭염 상황실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폭염상황실은 온열질환 응급처치 상담, 도내 무더위 쉼터 현황 안내, 기상특보 발령 시 상담근무자 보강 등을 통해 24시간 운영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기급적 자제하며, 시원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찰 문화재 2건 문화재로 지정

경상북도는 최근 개최된 도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를 통해 경북 유형문화재 2건을 6월 2일 자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2건의 문화재는 중국 송나라 대혜선사가 문인 사대부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포항 원법사 소장 대혜보각선사서’와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미 남화사 석조약사여래좌상’이다.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으로 '바이오보국 실현' 비전 선포

경상북도는 6월 17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 포스텍과 함께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선포식은 도민의 숙원사업인 연구중심 의대 설립 의지를 다지고 그간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 공유와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본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국승마대회 공모사업 최다 유치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전국승마대회 공모 사업 (축산발전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최다인 7개 대회를 유치했다. 이는 전국 32개 대회 중 7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 경북이 말산업의 중심이며 특히, 승마대회 관련 각종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을 내실 있게 준비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도는 전국 최다인 7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국비 2억 원도 확보하게 됐다.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 도입 예산 확보

경상북도는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초기에 화세를 압도할 수 있는 산불진화용 초대형 헬기 보강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확보했다. 경북은 산림면적이 133만ha로 전국 629만ha의 2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의 43%가 침엽수림으로 이뤄져 있다. 산불이 발생할 경우 재난급 대형 산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불 초기 진압을 위한 초대형 헬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광역지자체 최초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나서

경상북도는 6월 16일 도청에서 국가보훈처와 지역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그들의 후손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2025년까지 울릉도 소방서 건립 박차

경상북도는 울릉도 소방수요 충족과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해 소방서 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울릉군 동리 일원에 8908㎡ 면적의 부지에 소방서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부지정지 작업이 완료되면 20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면적 3930㎡ 규모의 소방서를 건립할 계획이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첫 수출상담회서 168만 달러 계약

경상북도는 5월 2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미국, 베트남 등 11개국 53개사의 해외구매자를 초청해 '2022 상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개최한 대면 상담회로 지역 46개 기업, 해외 구매자는 현장참가 22개사, 온라인 30개사로 총 52개사가 참가했다.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9개사는 현장에서 직접 구매의향서 등 양해각서 협약을 체결하는 등 168만 달러의 성과를 거뒀다.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대상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돌입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 검사를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조직진단 및 인력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4월 12일 경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조직진단 및 인력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주민 참여권 확대에 따른 의회 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보고 후 선진사례연구, 내부 구성원 직무분석 등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해 12대 도의회 개원 후 최종 보고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제330회 임시회가 1일간의 일정으로 4월 28일에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한편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는 청도, 성주, 울진이 각 1명씩 줄고 포항과 김천이 1명씩, 구미가 2명이 늘어 지역구 55석, 비례대표 6석으로 경상북도의원 수는 당초보다 1명이 늘어난 총 61명으로 확정됐다.



“경북 공공플랫폼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공공플랫폼업 정책연구회’는 4월 6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북 공공플랫폼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배달앱 등 공공플랫폼업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한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착수했다.

“日정부, 언행불일치 외교청서는 즉각 철회해라”

경상북도의회는 4월 22일 日 외무성이 『2022 외교청서』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불법 점거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의 이전 정부와 변함없는 행태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협력할 것을 밝히고 외교청서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언행불일치한 행위를 지적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 331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 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했으며, 지난 11대 도의회 후반기 동안 활동한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7개 특별위원회의 성과가 담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노력 '탄소중립 실천'

지난해 빙하 두께는 1950년 대비 평균 33.5m 얇아졌고, 온실가스(419.05ppm)는 산업화 이전보다 151% 증가했다.
지구의 건강이 심각치 않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우리의 노력,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2050 탄소중립 선언한 경상북도

기후 위기가 현실이란 이야기는 이제 너무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상기후로 재산피해액이 이전 10년 연평균 피해액의 3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올해 산불 피해도 지독했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였다. 이에 경상북도는 하나뿐인 지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올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탄소중립 기술개

발 통합센터를 설립해 테스트베드 등을 조성해 가고 있다. 또 도시 속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단지와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울창한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와 수소차 지원 확대와 재활용품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 및 농어촌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 쓰는 플러그를 뽑자!

많은 전자기기 중에서 TV 셋톱박스 전원을 끈 상태로 한 달이 지나면 약 3,000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절약될 만큼 소모량이 많다. 이는 온종일 플러그를 꽂아 두는 TV의 대기전력에 비해 약 10배나 많은 양이다. 일일이 플러그를 뽑기가 힘들다면 절전 멀티탭이나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사용하면 된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도 대기전력 소비량이 상당하다. 밥솥은 보온 상태를 유지 하면 3 ~ 63W의 전력을 주기적으로 소모한다. 생활의 지혜로 밥 짓기가 끝난 후 남은 밥은 내열 보관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에어컨과 같은 계절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오랜 기간 집을 비울 때 핸드폰 충전기가 완충되었을 때 제품의 플러그를 뽑는다면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다. 한 가구에서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연간 82kg 정도의 탄 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이
혜택으로 돌아온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대상

전자영수증, 리필 스테이션, 무공해차 대 여, 다회용기, 친환경 제품, 미래세대 실천 (어린이, 청소년)

참여방법

탄소중립실천포인트 홈페이지(www.cpoint.or.kr/netzero/ghg)에서 회원 가입 후 분야별 실천행동 이행

인센티브

개인별 탄소중립 활동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원 지급

탄소제로 생활 속 실천법!

1 전자영수증 사용하기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2641톤이 발생한다.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면 20년산 소나무 9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약 1만5903톤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음식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 보자.



3 분리 배출하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버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의 양이 늘어난다. 일반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와 달리 소각하면서 온실가스가 나온다.



4 냉난방기 온도 조절하기

냉방기 온도는 2°C 올리고, 난방기 온도는 2°C 내리고!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실천하면 전력을 만들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동참할 수 있다.



개인 컵 갖고 오면 마실 물을 주는

경북 '지구별 약속터'

1호점 탄생

구미시 봉곡동에 '지구별약수터'가 문을 열었다. 대구·경북 지역 1호점인 이곳은 구미시 봉곡동에서 최근 문을 연 '플러스마이너스 커피숍'이다.

'지구별 약속터'는 생수병 소비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이다. 지역 내 카페나 식당 등에서 시민, 관광객이 개인 물병에 식수를 제공 받아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취지로 2019년 제주에서 시작된 사업이다. 개인 컵(텀블러)만 있으면 누구나 지구별 약속터로 지정된 곳에서 자유롭게 생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구미시 봉곡로 60



일상 회복 불안감(엔데믹 블루) 줄이는 노하우

저녁 회식 · 대면 근무는 괴로워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개인적인 시간을 중시해 왔던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울감과 불안울 느끼고 있다. 이를 두고 '일상 회복 불안감(엔데믹 블루)'이라고 하는데, 일상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이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엔데믹 블루'를 '일상 회복 불안'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 시간 침해 우려 우울감 커져

정부가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하는 엔데믹 체제로 전환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비슷한 무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전후로 입사한 이른바 '코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일상 회복 불안감이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직장생활이 더 익숙한 이들은 그동안 퇴근 후 운동이나 자기계발 등 저녁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직장과 사회생활에 시간을 더 뺏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또는 연기됐던 결혼식, 돌잔치 등 각종 경조사도 거리두기 해제 후 활발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지금! 여기!'만 우선 생각하는 훈련을~

일상 회복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수면 등으로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며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저녁 식사 중에 내일 출근을 생각하며 우울해지기보다, 밥이 잘됐다거나 반찬이 참 맛있다는 생각으로 내 눈앞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감정이 불안이나 우울로 뻗어나가는 걸 끊어주는 것이다. 또 어려움을 털어놓고 공감받을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극단적 우울감은 막을 수 있다.

TIP. 일상 회복 불안 극복을 위한 실천 방법

- 1.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기**
바로 지금의 감각에 집중하며 불안이나 우울로 뻗어가지 않도록 하자.
- 2. 중요한 우선 가치 정하기**
내게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고 먼저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자.
- 3. 고민 고백하기**
고민이 있다면 입 밖으로 소리 내어 천천히 읽으면서 객관화해 보자.
- 4. 비대면 활동 줄이기**
매일 20분 이상 빠르게 걸어 보자. 온라인 쇼핑 대신 직접 장을 보는 것도 좋다.
- 5. 일상 계획표 다시 짜기**
코로나19 이전에 하루를 생각해 보고 그사이 느슨해진 일상을 다시 구성해 보자.



경주 읍천항 벽화마을

7 July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1	25	26	27	28	29	30



구미 금오산

8 August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절취선 ✂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나이 _____ 세(남/여) _____

주소 _____

□□□□□□

※ 구독 신청(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함) □

주소 변경 □ 신규 □

(□ 체크해 주세요)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 유효기간
2021. 4. 1.~
안동풍산우체국
제40012호

새바람 행복경북

절취선 ✂

받는 사람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정대로 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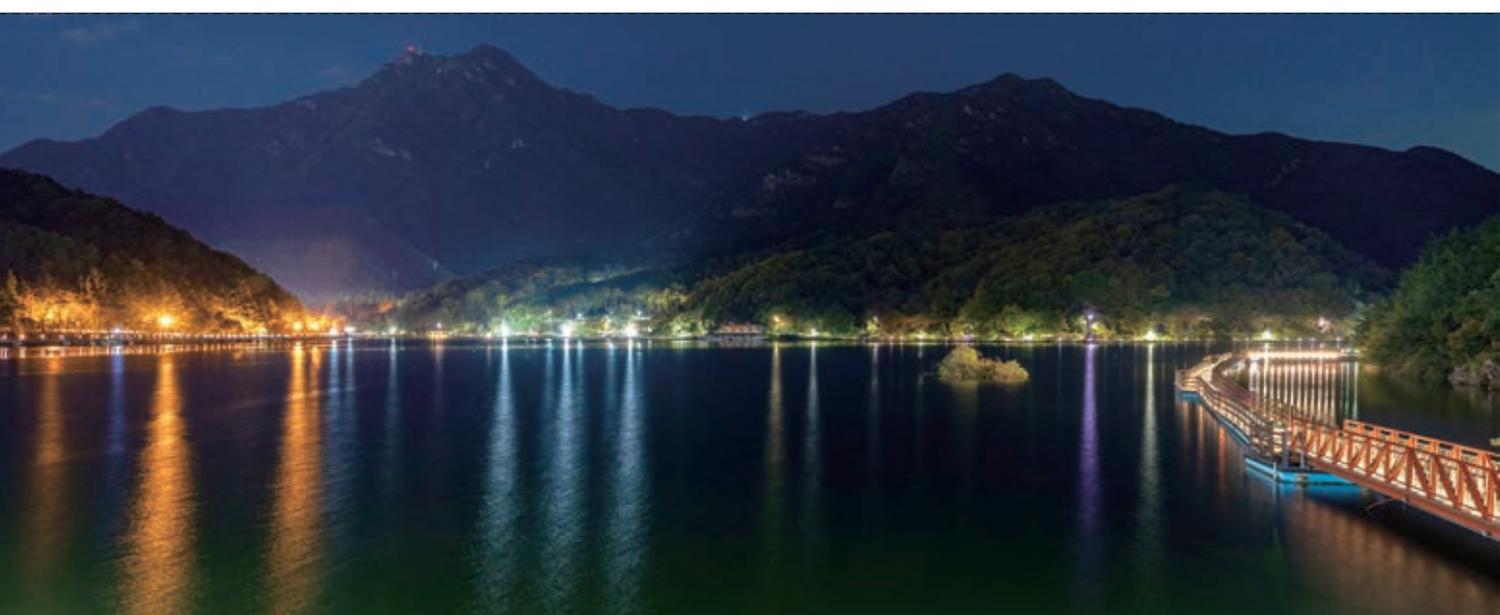
경북도청 대변인실

새바람 행복경북 담당자 앞

36759



7 July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 August 20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❶ '새바람 행복경북'을 읽고 난 소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❷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사는 무엇입니까?

❸ '새바람 행복경북'이 보완했으면 하는 점은?

기사 내용 편집·디자인 부수 확대·배부 방식 종이 질·책 크기 기타()

❹ 나만 알기 아까운 내 고장의 맛과 멋을 추천해 주세요.

❺ '새바람 행복경북'을 접하게 된 사연(장소)은?

관공서 방문 지인 홈페이지 기타()

1인당 20만원 지원

· 2022년 ·

경상북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에 지친 당신을 위한 좌절방지턱

3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수 시, 1인당 2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자 기관 연계 및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훈련·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세 ~ 34세 청년

- ①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불가
- ② (지역특화) 35세 ~ 39세 미취업청년(75명 선착순)
- ③ 위 조건 미해당자는 상담 후 조건충족 시 참여가능

모집인원 | 250명 (선착순)

모집기간 | 2022. 5. 2 ~ 2022. 12. 31 (상시모집)

신청방법 | 우측하단 QR코드로 접속

신청문의 | 054-771-9813~5 / 070-8803-5266

홈페이지 | <http://www.godo1539.com/>





경북 청년이면 모두 환영!
다양한 배움과 활동에
참여할 청년들, 여기 모여라!

2022년 청년발전소

경북청년인생설계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개요

참가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 남녀 누구나)
운영지역 및 일정 |

지역	예천	의성	경산
기간	6/21(화)~7/7(목) 화/목 운영	8/23(화)~9/8(목) 화/목 운영	10/4(화)~10/27(목) 화/목 운영
장소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청년대미파크	경북청년CEO센터

프로그램 내용

- ① 경북에 자리잡다 - 경북 청년지원 정책 소개
- ② 경북 금쪽 상담소 - 부모교육
술기로운 경북청년 - 직장 내 소통법
- ③ 지갑 두툼한 경북청년 - 개인재무 관리방법
- ④ 가치를 나누는 경북청년 - 플로깅하고 저녁 먹기
- ⑤ 나도 경북청년 CEO!! - 지역 청년 창업 노하우
- ⑥ 경북에서 잘사는 청년 - 성공 취업 전략
- ⑦ 몸과 마음이 편한 경북 청년 - 오일풀볼 만들기

※ 원하는 프로그램 개별 신청 가능!

모집기간

6월 9일(목) ~ 모집 시까지

참가방법

QR코드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신청

참가자 혜택

전원 참가비 없음!
프로그램 참가 시 마일리지 지급 및 마일리지 별 상품 지급!

- 마일리지 1000점 이상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 마일리지 1000점 미만
 ~700점 이상 캐릭터 토스트기
- 마일리지 700점 미만
 ~500점 이상 커피교환권

참가문의 및 신청

☎ 054-650-7966

"인스타그램에서 경북청년발전소를 검색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경북청년발전소 홈페이지(www.younggbk.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